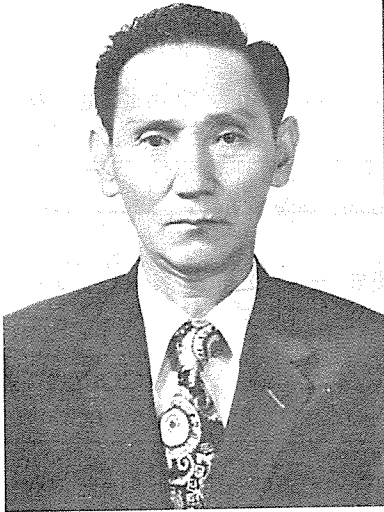


# 意志의 齒科人 33 劉 鍾 德 先生님



① 1967年 서울大齒大 敎務課長 執務室에서.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이곳은 公州 유중덕敎수의 意志의 發祥地이며 그 代名詞이기도 하다.

1943年 京成齒專을 卒業한 以後 敎授補助員, 專任講師, 助敎授, 副敎授 그리고 1965年 敎授가 되기까지 그가 심어 놓은 意志의 열매는 놀라운 것이었다.

意志의 齒科人 유중덕敎수를 거처간 弟子齒科醫師는 헤아릴수도 없지만 그의 指導로 석·박사학위를 取得한 齒科人이 무려 23명이나 된다.

意志의 齒科人 유중덕敎수는 實踐이 앞서는 行動家이기도 하다. 그의 뜻을 헤아릴수 있는 것은 結果가 發生해서 비로소 모든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平北 昌城出身이신 意志의 齒科人 유중덕敎수는 20代의 젊은 나이로 8.15 解放을 맞으셨고 그로부터 30餘年間을 서울大學校 齒科大學에서 研究者로서, 敎育者로서, 大學의 관리자로서 또한 宗教人으로 偉大한 발자취를 남기셨다.

더구나 大部分의 醫學者가 꺼려하는 基礎醫學을 擇하시어 구강해부학교실 主임敎授로 30餘年間을 奉職해 왔으며 지금도 그길을 默黙히 견고 있는 것이다.

의괄수人生, 이것은 그의 生活이자 哲學이며 意志의 一端이기도 하다.

恒常 溫和하고 慈悲로운 性品은 그의 指導로 輩出된 門下生은 齒科醫學界의 重鎮으로 活躍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回甲을 맞은 意志의 齒科人 유중덕敎수에게는 門下生의 精誠어린 華甲記念論文集이 獻呈되었으며 대 통령포장(면제포장)과 30年 勳績表彰을 받은바 있다.

나날이 發展하는 齒科醫學界의 先驅者로서 後進育成에 더욱 盡力하시기를 비오며 건강과 家內的 無窮한 光榮이 있으시기를 祝願하면서.

## 東 盛 齒 科 技 工 所

代 表 趙 煥 東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 (73) 0474 · (72) 9712